

나주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6건 모두 선정

고택·종갓집 활용 등 문화재청 응모...사업비 9억9000만원 확보
문화유산 체험콘텐츠 발굴하고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나주시가 응모한 6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응모한 총 6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돼 사업비 9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나주시가 응모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5개 사업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1건 등 총 6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같은 공모전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응모한 모든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천년고도 목사고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에 따르면 '생생 문화재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재를 콘텐츠화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가 있다.

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는 3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성별곡 별리 별리 달빛상'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나주 읍성권의 다양한 야간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남파고택에서 진행되는 '명사와 함께 하는 고택스테이'는 고택·종갓집에 대대로



'생생 문화재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인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모습. (나주시 제공)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다도면 소재 불회사에서 전통 산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전문 인력 발굴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주민자치프로그램 총결산 경진대회 성황

800여명 참석 다채로운 행사

나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를 총결산하는 '2019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나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일민)는 지난 20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2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가족, 기관·사회단체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해 온 주민자치위원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시정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전달과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 행사는 20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동아리 회원들의 풍물놀이, 난타, 댄스, 기타 연주 등 흥겨운 공연 등이 이어지며 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전시장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갈고닦아 완성한 서각, 국화본재, 비누향초, 냇김공예, 손뜨개바느질, 도자기공예 등 개인별 작품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20개 읍·면·동의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양과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주민자치시대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소 들어선다

나주시, 한전지사와 등과 구축 협약

전남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전기차 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나주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이화실에서 한국전력 나주시사, (사)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과 함께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해 한전 나주시사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교통충전시설을 시범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이 교통약자용 충전소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서 한전 나주시사는 올해 안으로 나주시 남내동 공영주차장(남내동 67)에 교통약자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충전소 구축은 시가 충전소 부지 무상제공과 지분을 설치하고,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은 충전기 사용에 대한 사용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용 전기차 충전소(급속50kW급)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충전소에 비해 넓은 주차면에 조성된다.



충전커넥터 및 충전디스플레이 또한 지면에서 1~1.3m높이로 비교적 낮으며, 기상악화에 대비해 차량 출입구까지 덮을 수 있는 지붕(케노피)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경찰, 농촌 문화체험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펼쳐

나주경찰서는 농촌 문화체험행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쳤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24일 나주흥골드스파에서 농협나주시지부와 합동으로 다도·봉황·왕곡초 재학생 100여명 등을 초청해 '틴(Teen) & 팜(Farm)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청소년선도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유도를 지역적 정서에 맞춰 농촌문화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정경태 나주경찰서장은 "단순매뉴얼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플라워테라피) 참여하는 행사(코메디 공연)로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농협나주시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주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담은 농촌 체험행사를 펼쳐 학교폭력 예방 등 바람직한 문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 배박물관 29일까지 '배 따기 체험행사' 운영



'배 따기 체험행사'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이 배를 따는 체험을 하고 있다. <나주배박물관 제공>

나주시 배박물관이 '배 따기 체험행사'를 29일까지 시민과 관광객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배따기 체험과 함께 학예연수가 들려주는 나주배 역사와 재배과정 이해, 배들이 에코백(수확용 가방) 꾸미기, 나주배 시식 등 참가자들에게 즐

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사전 예약을 통해 26일 첫날 행사에 참여한 130여명의 시민은 태풍을 이겨내고 알맞게 무르익은 배를 따고 시식과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